

# 미룡초 어린이들에게

미룡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장 이경아 입니다.  
여러분을 만난지도 벌써 60일이 넘었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는지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뛰어놀아야 할텐데  
집에서 지내기가 많이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빨리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놀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부모님, 우리의 건강을 위해 애써 주시는 모든 분들 모두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지치고 힘들지만 모두들 열심히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할 때까지 조금 더 참고 기다려 주어야겠지요?

오늘부터 4,5,6학년 원격수업이 진행됩니다.  
수업 준비를 위해 선생님들도 날마다 수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도 처음하는 수업이고 짧은 시간에 준비해야 해서 처음엔 잘 적응이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잘 소통하면서 하나씩 천천히 같이 잘 해 보도록 합시다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와 가족간 전염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심 단계가 아니니 여러분 모두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하게 학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미룡초등학교장 이경아